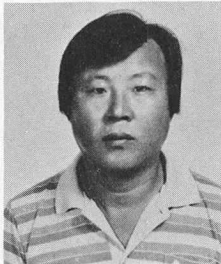


● '88년을 보내며

# 종돈업계를 돌아본다



윤 덕 영

(덕영종돈장 사장)

금년의 양돈업계는 지난 해에 진단했던 예상보다 좋았던 한해라 생각된다.

단지 근래에 닥치지 않았던 폭염의 지속으로 일부 지방의 번식돈이 많은 피해를 입어 내년 5~6월경에 일시적인 돈가의 양등으로 수입개방 압력에 의해 돼지고기가 대량 수입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돼지가격이 하락되어 비육돈 1두당 약 10만원 내외로 재미가 없는 상태라, 이런 상황 아래 종돈업계를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은 난감한 마음이 든다.

장마와 폭염속에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학생들과 양돈인이라는 직업인으로 17일간을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을 돈육소비 사이클 캠페인을 다니며, 많은 양돈인과 함께 호흡을 같이 했다. 생산관리문제 등을 대화하고 토론도 하며 양돈의 실상을 잠시나마 돌아 봤다는 것이 금년의 가장 큰 보람이었고, 번식체계와 종돈의 선택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짧은 상식으로 종돈업계를 회고해 본다.

나 역시 부족함이 많은데 종돈장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벽에 부딪쳐 왜 했던가를 되뇌이며 종돈을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는 문제가 생각되는 것을 나열하며 공동으로 회고하기로 한다.

## 1. 무계획한 번식

각 종돈장마다 나름대로의 계획하에 번식시켜 분양을 하고 있겠지만, 농장마다 특징이 있고 육종에 원리를 따져 번식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종돈을 보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2. 업주와 관리자의 지질

우선 먹긴 곳감이 달다는 속담과 같이 한마리라도 더 분양하기 위해 웬만한 결함이나 자신없는 것들도 구입자의 충족을 시켜주려고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

과감한 용단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퇴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아울러 늦은 감이 있더라도 학문적인 뒷받침이 되는 공부와 노력을 병행하여 명실상부한 종돈업계가 질적인 향상이 따르고 관리자 역시 전문인으로 전환할 시기가 아닌가 여겨진다.

### 3. 무절제한 종돈수입

금년에도 막대한 외화를 들여 많은 두수의 종돈이 수입되었는데, 차제에 한번쯤 생각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계통조성을 신청한 농장에선 기본 축을 위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순종을 번식시켜 일반농가에 3원교잡 내지 F<sub>1</sub>(일때 잡종) 번식모돈을 위한 분양을 함에 꼭 돈입돈의 당대를 분양하고 번식율이 떨어질 즈음 또다시 반복 수입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깊이 심사숙고 할 때이며, 올바른 인식과 지식으로 국가적인 차원을 생각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입함이 바람직하다 느껴진다.

### 4. 공인 종돈능력검정소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인 종돈능력검정소가 금년에 와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름대로 몇자 나열한다.

종돈장을 인가받은 농장에서 자돈을 입식시켜 사육하고 검정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열기가 식었는지, 아니면 사양이나 관리 및 시설면에 결함이 있는지 많은 숫자가 전지·후지 불량으로 폐돈이 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 여겨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출품농장에선 농장검정을 병행하고 있다. 동일한 동복자는 이상이 없는데 육독 검정소에서는 많은 두수가 폐돈이 되고 있는 상태이니 검정소 직원들의 자질과 관리상태의 정확한 점검과 아울러 분석을 하여 출품농장이나 구입농장에 보다 좋은 인

식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임이라 생각한다.

### 5. 구입농장의 바른 선발

약 5천년전부터 좋은 종돈의 선발이 좋은 육돈을 생산한다는 인식이 되면서부터 종돈 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종돈장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다. 외람된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본인이 보기엔 구입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 돈군(豚群)의 성적을 참작하지 않고 다분히 이웃의 이야기나 공인 종돈능력검정소의 성적에 의존하여 유행적이며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구입하여 마구잡이식 번식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지는 한번쯤 생각해야겠다.

자기가 보유한 돈군의 결함을 찾아서 그 결함을 보완해 주는 종돈을 구입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종돈구입이 아니겠는가?

### 6. 양돈인의 자세

종돈장을 운영하는 분이나, 비육돈을 사육하는 분이나, 항상 변함없이 서로 신뢰하고 상부상조하는 믿는 사회가 아직은 덜된 것 같아 씁쓰레한 기분이 든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종돈업자는 구입농장을 불신하고 구입농장은 종돈장을 헐뜯고 욕설하는 것을 많이 대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당장 견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돼지에게 모든 정열을 다하기로 결심한지 20여년이 지난 현실이 안타까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6가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열거하며 종돈업계를 돌아봤다. 외람되게 훌륭하고 알차게 종돈장이나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께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거듭바라고, 앞으로의 양돈업이 보다 알차게 되길 기원하며 끝 맺으려 한다. \*